

미술 교과서로 이해하는 북한 미술교육¹⁾

정혜연

홍익대학교 조교수

요 약

북한의 미술교육은 사회주의적 성격인 당성, 인민성, 계급을 근간으로 주체미술과 조선화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북한이해보고서, 2018). 따라서 북한의 미술교육은 우리와 비교되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미술 교육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기준으로 북한의 미술 교과서를 비교하는 연구들로 사례도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중학교 2학년 공교육 미술 교과서에 관한 문헌 연구로서 2010년에 제작된 중학교 2 미술(주체 92)과 2014년에 제작된 초급중학교 2 미술(주체 103)을 비교, 분석하여 북한 미술교육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Krippendorff, 2004)을 활용하여 주체 92 교과서에서의 미술교육이 2014년에 제작된 주체 103 미술 교과서에서 어떻게 내용상으로 학습 목표, 평가, 기술의 방식 등이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체 103 초급중학교 2학년 미술 교과서는 흑백의 교과서에서 컬러로 변화되었고 해상도가 높아져 시각적 인지도가 확연히 좋으며 교과서의 분량이 60쪽에서 113쪽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서술 방법의 기본 방식과 문장 사용 방법이 학습자 중심으로 개정되었고, 각 단원 말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생활적 연관성”을 기본으로 학습자 개인의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를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목차 중심으로 귀추화 해보면 실상 전체 구조의 변화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화의 근본적 사상, 즉 조형적 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생활 수단과 환경을 고상하게 꾸리는(통일외교원, 2018) 주제화를 강조하고 있다. 즉 도덕적이고, 노동을 찬양,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중심은 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내용은 그대로임에도 학습자에 관한 서술과 평가에서 보이는 북한 미술 교과서의 큰 변화는 예술교육이 더 이상 지식과 표현의 습득이 아니며, 한 사회의 이념이 뿌리에서 가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이해와 표출이어야 함이 북한의 교육에서도 인정됨을 의미한다.

주제어

북한 미술교육(art education in North Korea), 북한 미술 교과서(North Korean art textbook), 조선화(Korean painting used in North Korea), 주체 미술(Kim Il Sung's philosophy regarding visual art), 구성주의의 사회적 인지(social perception of constructivism), 지각체로서의 예술작품(art works as a compound of percepts and affects)

1) 본 연구는 홍익대학교 연구비가 지원되었음.

들어가는 말

주체철학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문화와 예술은 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계급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적 성격을 기반으로 당성, 인민성, 계급성을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8). 북한의 예술은 국가를 위한 예술로 개인숭배와 통치권을 정당화하도록 제작되어 왔다(Portal, 2005). 김일성(통일교육원, 2011)은 “미술은 인민의 생활 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로 돼야 한다”(p. 225)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북한 미술에는 “기념비 미술”이라는 명칭의 작품이 많이 있었다. 즉 노동자들이 망치 들고 노동하는 장면, 농민들이 벼 이삭을 들고 만면에 미소를 짓는 장면들을 보여 주는 작품이 많이 등장한다. 인물의 표정은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웃음을 가지고 있는 노동의 즐거움을 칭송하는 내용이 많다. 이러한 기념비적 미술은 한국 사람은 물론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읽어내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북한의 미술에서는 추상은 “죽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상화나 추상 조각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 말해 사실화만이 미술의 정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의 미술 문화와는 큰 간극을 보일 수밖에 없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의 문화와 교육의 상황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육에 관한 연구, 평화와 통일, 그 대비와 관련한 논의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됐다. 다른 북한에 관한 연구에 비해 북한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는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북한 미술, 통일 교육을 위한 미술교육 사례 등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통일 대비 남북한 미술교육 통합 방안 연구: 남북한 미술의 특징과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김진아, 2012), “중학교 미술 교과에서의 통일 교육 방안 연구”(이은하, 2012), “통일대비 남북한 미술교육 방안 연구: 초·중학교 대상의 미술 교과서를 중심으로”(김진태, 2017),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미술과 수업방안 연구”(윤혜준, 2017) 등 통일 교육과 관련한 미술교육의 방안이 학위논문으로 발표되었다. “남·북한 초등 미술교육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3, 4학년 전통회화와 서예 영역을 중심으로”(조유나, 2012), “남북한의 중학교 미술 교과서 용어 조어 분석 비교: 표현 영역을 중심으로”(윤여진, 2018) 등 북한 미술 교과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남·북한 미술교육을 병렬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에서 미술은 직관적인 묘사와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 미술교육의 궁극적 목표와는 다르며, 이를 우리의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가진 미감을 기준으로 북한의 미술 교과서를 비교하는 것은 미의식의

형성을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 시각에서 다른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미술 교과서를 그 자체로 분석하여 북한 청소년이 가지고 있을 미감의 이해를 통해 북한 문화와 예술에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현재 통일연구원에서 접근 가능한 북한의 미술 교과서는 초등학교용인 도화 공작과 우리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중학교 혹은 초급중학교의 미술 교과서 1, 2학년 용, 그리고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교의 미술 교과서와 공연 예술을 포함하고 있는 예술 교과서이다. 출간연도로 보면 2010년(주체 92) 출판과 그 이전 출판 교과서가 있으며, 2014년 출판 본(주체 103)의 최근 교과서가 있다. 다른 과목도 그러하지만, 특히 미술은 2014년(주체 103)에 출간된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모두에서 목차를 비롯하여 내용과 도판 등에 큰 변화를 보인다. 본 연구는 비교가 가장 용이한 중학교(혹은 초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집중하여 미술 교과서의 전체 구조와 2010년에 제작된 중학교 2 미술(주체 92)과 2014년에 제작된 초급중학교 2 미술(주체 103)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았다.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는 기준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중학교 2 미술(주체 92)과 2014년에 제작된 초급중학교 2 미술(주체 103) 미술 교과서의 목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 북한의 중학교 2 미술(주체 92)과 2014년에 제작된 초급중학교 2 미술(주체 103) 미술 교과서의 목차와 내용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 북한의 중학교와 고등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특히 감상 부분에 소개된 작품은 무엇이며, 예술 작품의 미적 인지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접근이 쉽지 않았던 북한 미술 교과서를 분석함을 통해 우리 미술 교육계에 북한 미술과 문화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중학교 2학년 과거(주체 92)와 현재(주체 103) 교과서를 비교하여 북한의 미술교육체제와 미술교육 목표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두 교과서의 비교이나 주체 92 교과서의 설명보다는 주체 103의 설명에 중점을 두어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청소년의 미감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미술교육의 체계인 미술 교과서를 연구 자료로 하는 문헌연구이다. 본 연구는 연구 문헌의 접근이 쉽지

않은 제한성으로 인해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까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연구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접근 가능한 문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교과서를 내용상으로 비교하고 있어서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Krippendorff, 2004)를 활용하였다. 내용 분석법은 문자 혹은 시각적 텍스트를 양적인 면을 고려하여 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에릭 우드럼(Woodrum, 1984)은 내용분석의 방법론 특성에서 비교론 연구에 합당하기 때문에 사회과학 전반의 연구방법론으로써 적합하다고 강조한다(김수진, 2019에서 재인용). Krippendorff(2004)는 내용분석을 단위화, 표본추출, 기록과 코딩, 간소화, 귀추적 추론, 서사화의 6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순서를 바탕으로 두 교과서의 단위별로 단위 화하고, 그 중 대표적인 특징적 표본을 추출하여 반복되는 이미지와 내용을 코딩, 간소화하여 서사적 결론을 내었다.

이론적 배경

북한의 미술, 주체미술, 조선화

주체철학은 김일성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상으로 외세에 굴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주(主)는 주인을 체(體)는 몸, 전체, 혹은 본질을 뜻하며, 이 둘을 결합하여 “행동의 기초” 혹은 “근본 목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근간으로 한다고는 하나, 실제로 위대한 지도자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심을 의미한다(Portal, 2005). 1966년 김일성이 주장한 새로운 주체예술은 스탈린이 “형식에 있어 민족주의적이고 내용에 있어 사회주의적인”(p. 42)으로 규정하는 것을 모방한다. 이는 마오쩌둥의 사상과도 거의 일치하는데, 전체주의 사회의 예술이 갖는 기본적인 요소들로 뭉쳐져 있다. 평양은 마치 연극 세트와도 같이 개선문, 탑, 영웅 조각상 등의 건축물로 채워져 있으며, 영웅적이거나 혁명적인 소재를 활용한 공공 사회 예술이 지배적이었다. 김일성 지도자를 영웅화하기 위해 지도자의 대형조각상을 제작하고 그들이 태어난 곳을 묘사하는 것은 추후 김정일의 영웅화로도 이어졌으며, 미술사 역시 김일성, 김정일의 위치에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구려 미술을 높게 평가한다. 이에 비해 신라나 백제의 미술을 저평가하고, 금강산의 실경 산수를 높게 평가를 한다(Portal, 2005).

북한은 미술을 “현실에 대한 조형적 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내는 직관 예술”(p. 194)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생활 수단과 환경을 고상하게 꾸린다”(p. 194)라고 설명한다. 북한의 미술은 회화, 조각, 공예, 수예, 조선보석화 등으로 나누어지며 회화에는 조선화, 선전화, 유화 등이 있다. 북한은 조

선화의 특징으로 동양화의 맥을 잇고 서양화의 기법을 혼합한 것, 색이 밝고 부드러운 것을 든다. 북한에서는 유화에서도 조선화의 기법을 응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포스터의 일종인 선전화도 미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통일교육원, 2018). 주체미술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노동 계급의 사실주의적 미술”이며, 주체미술의 탄생은 주체사상이 북한의 사상으로 확립되는 시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1992)에 의하면 주체미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인민대중을 세계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시킨 미술이며 인민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맞게 미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을 전면적으로 우리 인민의 생활 감정과 정서에 맞는 미술형식에 인류사상 발전의 최고봉을 이루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노동계급의 새로운 사실주의 미술이다.(북한 사회과학원, 1992. p. 324)

김일성(2012)은 주체미술에서 조선화의 발전을 강조한다. 조선화를 그 자체로 전통적인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또한 조선화를 토대로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발전시킬 것을 지시한다. 다시 말하면 조선화를 토대로 미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조선화 제작과 창작방법을 미술의 가장 기본으로 하여 이를 다른 유형의 미술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를 지향하는 복고주의 혹은 전통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현대에 맞는 간결성을 첨가하여 시대적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선화를 북한 인민에 의해 발생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 장르로 묘사하고 그 이유를 3~4세기의 고구려 벽화무덤의 양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북한 사회과학원, 1992). 이러한 역사를 지닌 조선화의 사실적 표현의 정당성은, “남조선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추상과 미술을 장려하는 것은 그른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추상미술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추상미술을 비롯하여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대부분의 예술 형태에 대해 부정한다(김일성, 2012).

현재의 김정은 정권도 사상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주체미술을 그 기반으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상 문화와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북한 사회의 안정과 정치적 집권의 정당성을 공고하게 하고 북한 주민의 동질성을 확보하려 한다. 북한의 현재 문화생활을(쉽쇄·안티구라다, 2019) 신랄하게 다룬 “북한 사회”에서는 북한이 우리 영화 “기생충”을 대표적 예로 들어 대한민국 사회를 빈부격차가 극심한 “썩고 병든 사회”로 묘사하며, 북한영화의 제작은 당성, 인민성, 계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문화생활, 언어 등의 변화에 외국 문화의 유입, 예술을 유입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북한의 문화의 핵심은 인민의 계급과 당에 대한 충성을 고취하려는 것에 현대 문화생활을 치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아빠트”로 표기하고 현대 편한 생활문화를 당에서 보급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북한 사회에서는 초고층 아파트, 특히 평양의 아파트가 전망의 대상이며, 이러한 편리한 생활을 권력과 연관 지어 당에 대해 충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현대 생활을 전망의 대상이자 문화생활로 만들어, 김정은 정권의 직접적인 선전이 아닌 생활의 측면으로 이끌려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변화와 문화에서 미와 예술에 대한 인민의 변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이면에는 지속적인 당성, 인민성의 충성을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섭쇄·안티구라다, 2019).

개인의 인지에서 사회적 규범

레프 비고츠키(Vygotsky, 1978)는 인간의 사고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서 인지적 구성은 항상 사회적으로 매개되며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 구성을 통해 지식은 내면화되게 되는데, 지식이 내면화되어야만 학습자로서 능동적으로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맥락은 첫째, 학습자가 특정 순간 만나는 사람들로 교사, 부모, 양육자, 또래 집단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가정이나 학교처럼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구조를 말하며, 셋째, 그 문화나 사회적 수준, 즉 언어나 수의 체제 혹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말한다. 비고츠키는 이 세 맥락이 종합적으로 학습자의 사고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형성된 사고가 학습자의 인지가 구성되면 마치 도구와 같은 개인이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지로 형성된 도구는 외부적 도구가 아닌 정신의 도구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한다. 이 정신의 도구는 물리적 도구와 다르게 한 사람의 외부에 대한 대응을 지배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한다. 이 정신의 도구는 인간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동할 수 있게 만든다. 다시 말해, 한 개인에게 학습을 도와주는 조력자, 사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 혹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개인은 그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정신의 도구로 활용, 문제를 만나거나 목표가 되는 일은 만나면 그 도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내면화에 대해 비고츠키(Vygotsky, 1978)는 사회적 단계가 먼저 일어나고, 이후 아동의 내부에 일어나 정신의 도구가 되어 다른 학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비고츠키가 다른 인지 발달론자인 피아제와 가장 다른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사나 부모, 교육자를 비롯한 또래 집단과의 상호 경험이 중요한 인지 발달의 과정의 역할이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피아제는 지식의 내면화 과정을 개체의 독립인 과정으로 보았지만, 비고츠키는 개인 간 과정이 개인 내 과정으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특정 사회 문화 상황에서 학습자가 어떤 사회 경험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를 이해하는 것이 학습자의 인지 발달 과정

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이러한 사회 문화에서 보면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미술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미술 학습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사회적 구조와 가치관을 속한 학습자는 그 사회의 구조를 반영하는 인지적 공동성을 나타낸다. 마사미 토쿠(Toku, 1998)의 미국과 일본 아동들의 그림에 나타난 공간 처리법 연구에서 일본 아동들은 미국 아동들이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공간 묘사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김미남, 2012에서 재인용). 또한, 메리 스토크로키(Stokrocki, 1994, 2004)의 연구도 유목문화에 존재하는 가치가 아동의 그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근거로 하여 아동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 모든 지식을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동의 그림을 단순히 아동의 개인인 표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경험한 사회 문화를 표현 의미 만들기 텍스트로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김미남, 2012에서 재인용). 종합하자면, 예술적 표현은 아동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을 반영하게 되며, 아동의 예술적 인지 또한 이러한 사회 미학의 구조를 도구로 사용하여 이해한다는 것이다.

지각체로서의 예술작품

예술교육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인지에 미치고 따라서 학습자 한 개인의 예술적 표현은 그들이 속한 사회 문화를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인지 작용이 개인 예술의 이해로 넘어가면 개인의 감정이 창조적 구조의 위치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술을 보는 것은 제작된 사회의 가치나 미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적 시각적 산물을 공유하는 동시에 개인의 감정적 상징적 변환 과정으로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술 작품은 제작된 이후 제작자나 모델에서 분리되어 실존된 독립된 존재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 생성된다. 질 들뢰즈(Deleuze, 1994)는 플라톤의 이데아 자체가 변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고는 결코 사유의 결과는 아니라고 하였다.

김재인(2013)은 예술 작품을 “감각들의 블록” 또한 “지각체들과 정동들의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예술 작품은 감각의 문제이며, 따라서 예술 작품은 “감각 기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p. 41)라고 한다. 예술 작품은 창조된 이후 물리적 재료로 환원될 수 없고, 감각적 재료 없이 창작될 수 없으므로 등장인물이나 풍경 등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실재하게 되고, 이 실재는 감각의 블록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는 지각이나 감상이라는 관념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의 정도가 아니라, 개인의 체험 문제를 넘어서 있게 된다. 즉, 예술 작품에서 주관적 감정적 지각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객체와는 멀어져서 “정동”이라는 것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동은 주객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것에 이르게 해서 예술 작품이 진정한 생성을 낳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다.

맹혜영(2020)은 들뢰즈의 “추상기계”에서 추상이 구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과 반대 개념을 인용하여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를 모방하는 복제물로서의 예술은 사실상 모방이 아니라 다양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포괄적인 차이 생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한다. 박정애(2015)는 관계적 시각에서 문화는 혈연과 국가에 의해 나무뿌리처럼 수직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횡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리좀(rhizome)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예술의 표현은 변화하는 내러티브가 사회, 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다. 다시 말해 어떤 사회가 사회 전체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를 뿌리에서 줄기의 연결처럼 사회의 미학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예술은 개인에게 횡적으로 작용하여 리좀적인 이해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에 감정적 이해와 생성으로의 삶의 과정은 개인의 감정적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주체 92 중학교 2학년 미술 교과서의 구조와 내용

북한의 미술 교과서는 중학교 1, 2, 3학년용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화, 조각,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의 순으로 이루어져 그 장르의 구분이 명확하다. 중학교의 다른 학년과 고등중학교(고등학교에 해당) 미술 교과서 역시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작품과 난이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연계성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주체 92 중학교 2학년 미술 교과서의 목차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중학교 2학년 미술 교과서 주체 92 (2010) 목차

대목차	소목차	쪽수
회화	정물화	2-9
회화	풍경화(조선화)	10-15
회화	인물화	16-19
회화	주제화	20-27
조각	환각, 부각	28-35
출판미술	판화(단색판화)	36-39
도안	평면구성	40-43
도안	안내도	44-45
공예	관금공예	46-47
공예	조물공예	48-49
서예		50-51
감상	강성의 저녁노을(조선화)	52-55

회화

주체 92 교과서에서 정물화의 내용은 정물에 대한 표현과 빛에 의한 색의 변화에 대한 묘사를 주로 이루고 있다. 구도와 명암을 통해 입체감이 드러나는 묘사를 추구한다. 그 기법과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풍경화는 조선화의 표현기법에 관해 설명하는 장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중요한 “정일봉²⁾”이라는 산이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의 유명명소를 묘사한 작품을 높게 평가하며 이러한 묘사력에 대한 평가와 인민의 사상이 담아야 함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정물화와 풍경화 모두 표현 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따라 그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1-4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소묘의 순차와 방법”(pp. 4-5)은 다음과 같다.

- ① 화면에 가로세로 중심선을 긋고 묘사대상의 범위를 설정한 다음 가선으로 대체적인 윤곽을 잡는다.
 - ② 부분의 위치와 형태를 잡으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구체화하고 명암을 갈라준다.
 - ③ 명암묘사를 심화시키면서 대상을 입체적으로 빚어 나간다.
 - ④ 입체적으로 든든히 빚으면서 색감, 질감, 공간감을 표현하여 그림을 완성한다.
- (pp. 3-4)

이후 모든 교과 전반에 “참대 그리기 순서,” “조선화 풍경 그리는 순서,” “부각 소조과정,” “강냉이 오사리 방식 만들기,” “바구니 만들기”와 같이 작품을 제작하는 따라그리기, 만들기 표본을 제시하고 똑같은 표현을 유도한다. 대부분 4단계로 형식적 기법을 따라 하여 3차원의 공간감, 자연물에 대한 비례감, 공예의 실용성 등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정물화에서는 소묘에 대해, 풍경화에서는 화조화에 대해 풍경화에서는 수채화의 형식적 특징을 제시하고 형식적 방법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물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동의 모습과 조선화의 주제 중 하나인 북한의 인민 영웅이다. 유화의 최재남 작 “정일봉의 아침”과 김수동 작 “못가의 저녁”을 작품성을 높이 평가한다. 리도영 작가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자세히 이루어져 있는데 일제 강점 시기 민족미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과 대표작을 제시하고 “나라 잃은 당시 우리 민족의 애끓은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p. 15)라고 민족적 감정을 설명하고 있다.

인물화에서는 인체의 비례는 다르나 “일반성”이 있다고 하며 이상적인 신체의

2) 본 연구에서 북한 교과서를 인용하는 부분은 한글의 표기법과 띄어쓰기는 우리식이 아닌 북한 교과서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어의 표현과는 그 기준이 다르다.

비례를 제시하고 사실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화는 학생들의 일상에서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당에 대한 충성이나 타인에 대한 도덕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주제화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우리들의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하는 모습을 주제화로 그려야 한다. 무심히 스쳐 보내는 생활도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언제나 생활을 깊이 연구하여 이야기거리를 찾아내고 화면에 표현하도록 하여야 한다(p. 20).

정물화부터 주제화까지 회화의 내용이나 양에서 반 이상이 주제화에 관한 것이며, 주제화만을 따로 설명하는 장도 7장에 이른다. 이 주제화 부분에서는 명작의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인민의 정신과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내용, 표현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즐거운 표정에 집중하고 있다. 학생들의 작품이 거의 실려 있지 않으나 “나의 동무”처럼 아픈 친구를 돌보는 이타적 도덕적 행위를 고무하는 내용이 많다.

한국의 미술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작품으로는 신윤복의 작품이 있다. “김홍도,” “리인문” 등과 함께 풍속화가의 설명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윤복은 18세기의 이름난 풍속화가이다. 그는 김홍도, 리인문과 더불어 18세기 우리 나라 미술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 세웠다.……썩어 빠진 봉건통치배들과 중들의 더러운 행실이 공개적으로 비판되고 있으며……봉건 통치배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이러한 그림을 그린 것으로 하여 도화서에서 쫓겨났다고 한다.(p. 25)

김득신의 “량방과 농민”도 소개하며 조선의 신분제 사회를 신랄히 비평하고 김성민 작 “지난날의 용해공들”과 같은 예로 “황해 제철련합 기업소”의 “공훈 용해공”을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당시의 북한의 통치체제나 행복한 노동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북한의 과거가 “량반”이나 일제에 의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었던 것에 비해 그 당시 북한은 도덕적이며 사랑이 넘치는 통치와 행복한 노동을 하는 인민의 생활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조각

조각에서는 조각을 환조, 부조, 그리고 환경 조각으로 형식적 분리를 하고 있다. 내용은 회화의 주제들과 비슷하게 북한의 자연환경과 정치적 승리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환조에서는 “보람찬 학교생활을 내용으로 환각을 만들자”와 같이 도덕적인

내용과 “일제 원쑤놈들을 반대한 투사들”의 조각과 같은 인민 영웅의 모습을 따라 만들라고 한다. “불굴의 어린 투사 김금순동무”와 같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며 조숙녀 작 “상봉”이라는 작품에서는 “광복된 조국 땅에서 항일혁명투사와 딸이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모습을 하나의 덩어리”로 잘 구성되어 입체적 묘사를 높이 평가한다. 생활환경으로서의 조각은 군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양시를 비롯하여 공원과 거리에 조성된 장식 조각을 가리킨다. 이러한 군상들이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해준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부각에 대한 지식은 부각의 제작을 위한 “흙 붙이기”를 되도록 얇게 하면서도 대상의 입체감을 느껴지도록 제작하는 점토 작업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한다. 소조로 만든 부각은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석고로 다시 제작하는 “부각 석고 뜨기”의 제작과정을 6단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제작하도록 권유한다(그림 3). 이렇게 부조의 제작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집체(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념비적 대형 작품의 빠른 제작을 위해 작가의 이름이 없이 제작된 작품을 흔히 발견된다.) 작 “보천보정투슬리기념탑 <격렬>부분(주체 56년),” “백두산(개선문 장식조각 주체 71년),” “당창기념탑부각(주체 84년)”과 같은 집체 작품들이 도시 환경 곳곳에 존재해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출판미술

출판미술은 판화와 같은 의미이다. “돌을판(블록판),” “오목판,” “평판,” “공판”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다르게 제작되어야 하는지의 원리와 표현에 관해 설명한다. 판화의 내용 또한 회화에 비슷하게 풍경에 관한 것과 주체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교히 제작된 판화의 작품은 거의 없고 비닐판화 작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재나 묘사가 대부분이다.

도안

도안은 1. 평면구성과 2. 안내도로 각각 2장씩만을 할애하고 있다. 평면구성은 “대상을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것,” 특히 단순화한 대상을 소재라고 지칭하며 식물, 동물, 인물, 사물 등을 “물체의 본래모양과 색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아무런 감흥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의 형태와 색깔을 미술적으로 가공하여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단순화하는 과정의 법칙을 발견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효과적인 기하학적 형태가 유용하다고 설명한다.

안내도는 백두산, 만경대사적지와 같은 명승지의 지도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쓰임새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안내도에서 미적 디자인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한다.

공예

공예 부분은 1. 판금공예와 2. 초물공예에 각각 2장씩 할애하고 있다. 북한에는 도자기, 수예, 나전 옷칠, 죽공예 등 다양한 공예가 존재하는데 그 중 비교적 구하기 쉬운 재료인 공예의 2가지 종류를 설명한다. 판금공예는 “동판이나 알루미늄” 판을 두들겨 만드는 금속공예의 기본 형태로, 초안을 금속판에 붙여 나무망치로 못을 두들겨 만드는 제작과정이 정리되어 있다. 동물이나 과일 등을 두들겨 재현하라는 기술적 방법이 내용의 전부이다. 초물공예는 “왕골이나 갈, 싸리, 버들가지, 삼, 오사리” 등으로 만드는 공예로 방석이나 바구니를 짜는 수공예를 가리키는 것이다. 초물공예는 “그 어디에서나 재료를 구하기 쉽고 누구나 만들 수 있으므로 먼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보급되어 온 전통적인 민속공예의 한 종류”라고 설명한다. 순차적인 제작 기술 설명도 판금공예와 같이 “따라 하기”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감상

감상 부분은 “김정일원수가 극찬”했다는 <강선의 저녁노을>에 교과서 전체를 통해 한 페이지를 한 작품의 도판으로만 할애하고 있다. 설명은 다음과 같다.

로동계급, 아니 온 나라 로동계급의 충성의 마음인양 붉게 타는 저녁노을……
저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우리 주체공업의 위용한 자랑하며 거연히 속아
있는 천리마제강변 합기업소……화가는 작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는
가.(p. 53)

주체 92 교과서의 유일하게 “작가의 의도”를 질문이 수록된 곳이다. 정영만 작가 강산과 김성민 작 백두산인 조선회로만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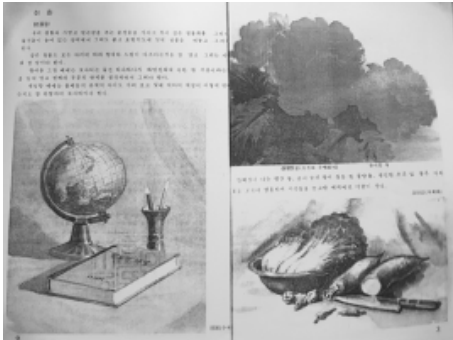
중학교 2학년 미술 교과서 주체 92는 학습자에게 질문이나 학습의 동기, 흥미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곳은 거의 없으며, 장르별 미술에 대해 재현의 사실화를 위한 “따라서 제작하기”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술적 연마를 위한 지침서라고 볼 수 있으며, 지시적 내용 외에 글로 설명된 부분이 지극히 작다.

주체 103 초급중학교 2학년 미술 교과서의 구조와 내용

주체 103 초급중학교 2학년 미술 교과서는 우선 흑백의 교과서에서 컬러로의 변환이다. 시각 예술에서 색채는 형태의 표현 이상 시각적 인지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러한 컬러로의 변화만으로 눈에 띄게 과거와는 다르다.³⁾ 주체 92 교과서가 거의 작품

3) 북한의 미술 교과서는 외부유출이 안 되는 자료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며 제작 기관의 연구

을 자세히 볼 수 없을 정도였던 것에 비해 주체 103 교과서는 출판의 해상도가 높아져 작품의 세밀한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림 1] 주체92 미술교과서(2010)
정물화



[그림 2] 주체103 미술교과서(2014)
우리 생활에서의 정든 모습을 보며

교과서의 분량 증가 또한 눈에 띄는 변화이다. 교과서 쪽 수가 113장으로 그 이전 교과서가 60장 정도인 것이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양적 증가세를 보인다. 이와 함께 서술 방법의 기본 방식과 문장 사용 방법이 극명하게 변하였다. 주체 92 교과서가 “잡는다,” “갈라 준다,” “빚어 나간다”와 같은 표현에서 “그려봅시다,” “표현하였습니다”와 같이 학습자에게 친근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 같은 문체의 변화와 학습자 위주의 표기는 목차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인다. 주체 92의 미술 교과서와 그 이전 대부분의 미술 교과서가 회화, 조각,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의 순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주체 103 미술 교과서는 목차를 서술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내용을 설명적인 목차로 변화를 보인다. 즉, 형식적 표현으로 목차를 제시했던 것에 비해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습의 동기나 목표로 목차가 변화되었다. 부제목으로 어떤 형식의 미술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

허가를 받아야 북한자료실 출입이 가능하며 모든 자료는 자료실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제한적으로 해상도가 낮은 흑백의 복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주체 92 교과서와 103 교과서의 시각적 차이를 보여주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2> 중학교 2학년 주제 103 미술 교과서(2014)의 목차

목차	표현 형식	쪽수
우리 생활에서의 정든 물건을 보며	정물보고그리기(소묘)	3-14
창공을 나는 새를 찾아	보고그리기(조선회화)	15-30
아름다운 생활은 우리 가까이	생각하여 그리기(조선회화)	31-44
간판을 멋있게 장식하려면	간판도안그리기(산업미술)	45-56
런속그림을 재미있게	생각하여 그리기(출판미술)	57-65
우리들의 모습을 립체물로 조화시켜보자	생각하여 환각으로 군상 빚기(조각)	66-76
충정의 마음을 서예 <한마음 따르렵니다>에 담아	서예	76-84
인형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여 만들기 (공예)	85-96
사상정서교양에 이바지하는 미술은	감상 및 토론	97-108

주제 92를 포함한 그 이전의 미술 교과서는 미술의 장르별 구분과 함께 “같은 정물도 보는 자리에 따라 형태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그리는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화가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꽃 피나는 참다운 인민의 금강산, 락원의 금강산으로 형상하였다.” 등과 같이 딱딱하고 지시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주제 103 미술 교과서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서술형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려보기-여러 물체들 가운데서 생활적으로 런관이 있고 조화가 되는 대상들을 찾아 정물구성을 해봅시다.”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생활 장면을 찾아 주제화화폭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펼쳐봅시다.” “작품은 화창한 봄날에 피어난 꽃송이처럼 환한 웃음을……랑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와 같이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변환되어 있다.

문체의 변화 뿐 아니라 학생작품의 수록이 대폭 증가하여 있다. 무엇보다 큰 변화 중 하나는 “평가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의 목표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제 92 미술 교과서가 활동의 이상적 표현만을 제시하였다면, 주제 103 미술 교과서는 다양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여 미술 활동의 다양한 방법과 원리, 학습자의 제작 의도 등을 고려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각 장의 내용적 구성을 다음과 같다.

우리 생활에서의 정든 물건을 보며

정물에 대한 구성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행복한 요람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들의 생활을 정물화화폭에 담아 소묘로 표현”하자고 하여 생활에 가까운 친밀함을 권장하며, 생활 정서, 미감, 그리고 “교양적 의의”를 불러일으키

도록 하라고 기술되어 있다.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리해”라는 지식적 습득과 시각적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표현기법의 습득이 주된 내용이다.

- 정물화에 대한 리해를 하였는가?
- 정물관찰과 구도구성 원리를 체득하였는가?
- 소묘기법에서 묘사대상을 생동하게 표현하였는가?
- 생활 적련관과 조형성이 보장되게 정물소재들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는가?(p. 14)

“생활 적련관”이라는 용어는 지속해서 다른 장의 평가 부분에 주요 요소로서 학습자의 생활 속에서 시각 예술의 조형성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공을 나는 새를 찾아

우리 전통화인 화조화를 기반으로 동식물에 대한 묘사에 관한 장이다. 표현기법으로 “조선화 물골기법”의 이해를 독려하여 조선화의 붓질과 필치가 사물에 대한 표현에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이러한 물골기법을 체득하였는지가 학습의 목표이다. 평가는 “새의 형태적 특징을 바로 리해하였는가”와 같이 이해와 “조선화 물골기법의 기초원리를 실기과정에 활용하였는가?”와 같이 표현의 기법적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아름다운 생활은 우리 가까이에

일상생활에서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우리들이 생활하는 과정을 눈여겨보면 사람들에게 싶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많습니다”로 시작하여, “생각하여 그리기(조선화)라는 부제로 학습자의 생활의 아름다운 소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다. 주체 103 교과서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장으로 일상생활이 어떠해야 바람직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주제는 대략 3가지 정도로 분류 가능한데, 1) 다양한 직업군에서 노동의 기쁨, 2) 타인과의 공조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도덕성, 그리고 3) 정부나 정치 세력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의 아름다움과 중요성, 다른 사람과 북한 사회 전체에 도덕적인 인성을 함양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정치권력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표현이 집중적이다.

주체 92 교과서가 인물화, 풍경화 등 여러 부분에서 창작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여 기술적 연마를 추구하던 것에 비해 미술 교과서 주체 103(2014)은 학습자가 표현하는 기술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화면에 담아봅시다”와 같이 학습자가 생각하거나 주변의 모습을 찾아 표현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제화에서 “명화창작과정”은 “무력투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 혹은 당에 대한 로동계급의 끝없는 성실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계근의 “강철의 전사들”(1966년)을 높이 평가한다.

화가는 현실 속에서 용해공들과 침식을 함께 하면서 장작초안과 재료습작을 진행하였습니다.……화가는 용해공들과 일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심장 속에 간직된 쇠물보다 뜨거운 당에 대한 충실성에서 큰 충격을 받고 이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pp. 38-39)

화가가 창작한 <강철의 전사들>은 모두 두 작품이 있는데 두 작품을 모두 소개하고 “화가의 표현의도에서의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학습자를 격려한다.

주제화에 관하여 미술에서는 창작과 관련한 사고력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고력은 “사물현상의 본질을 인식하고 리론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한다. 주체 103 교과서에는 작품 제작의 순서를 설명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주제화그리기순차와 방법”으로 한 페이지를 할애하여, 1) 구상초안, 2) 밑그림 그리기, 3) 본 화면 그리기, 4)세부 묘사 및 완성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평가는 “아름다운 생활내용을 리해”하였는지, “주제가 명백”하게 드러나는지와 “조선화의 기법적” 이해가 충분한 지이다. 다시 말해 주제화의 내용적 특징을 표현으로 잘 이루어냈는지 그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의도를 읽어 보도록 하는 연습이 주를 이루어 생활의 모습 안에 담긴 “성실한,” “영웅적인,” “훌륭한” 일상생활의 모습을 표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간판을 멋있게 장식하려면

건축물이 “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 문화정서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한다”고 하여 실용성과 미적 가치가 동시에 중요함을 설명한다. 제작으로는 우리의 포스터 제작과 비슷한 장으로 간판도안과 불투명 안료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다채로운 장식과 어울려 하나의 완성된 예술적 창조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 문화정서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건축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는 “간판도안에 대한 리해를 하였는가?,” “착상이 새로운가?” “간판도안이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었는가?” “불투명안료의 특성을 알고 옳게 표현하였는가”가 있다. 다시 말해, 이해와 구성, 자료적 특징의 구현에 있다.

런속그림을 재미있게

주체 103 미술 교과서의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를 담고 있는 장 중 하나이다. 주체 92 교과서의 판화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 판화의 다른 종류나 기술적 표현방식을 설명하

는 것이 아니라 “출판미술은 판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출판미술은 “연속그림”의 형태로 제작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속그림”은 일정한 주제의 내용을 “여러 장면의 그림으로 펼쳐 보이는 것”으로 “만화, 그림극, 그림 이야기형식”이라고 말하며 스토리가 담긴 연속된 그림을 말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문학적 서술을 시각적 예술로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장에는 아동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교양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하는 그림을 말한다. 아동화에서는 어린이들의 동심세계와 성격적 기질, 취미와 정서에 맞게 내용을 규정한다. 아동화는 그 형식에서 어린이들의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수법을 리용하며 묘사도 될수록 단순하고 명백하게 한다. 아동화는 어린이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그림이나 이야기를 묶은 그림책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창작한다.(p. 57)

이러한 설명을 과거의 아동의 미술을 명화나 주제화 등과 구분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아동의 미술이 중요한 예술적 형태임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속 그림책”은 “직관성과 설득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설득력을 구성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이를 시각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연속 그림책 제작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주제를 정하기: 우리들이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았거나 선생님과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들은 인상깊고 감동적이었던 이야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서술하기: 선택한 주제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4-5단계로 나누어 이야기를 만듭니다.

연속 그림 장면 구성형식을 구상하기: 이야기내용에 맞는 연속 그림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인공과 주위인물, 환경을 구상해봅시다. 연속 그림책을 병풍식 또는 묶은 형식, 족자형식 등으로 선택한 주제에 어울리게 구상해봅시다.

초안 및 초본그리기: 선택한 이야기내용에 맞게 초안을 구성해봅시다...

채색 및 완성하기: 채색에서는 선과 색을 결합하여 대상을 단순화하면서도 직관성이 있게 묘사합니다. 중심대상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내용이 살아나도록 합니다.

연속그림 제작완성하고 감상하기(p. 59)

우리들의 모습을 립체물로 조화시켜보자

“보람찬 학교생활을 내용으로 한” 군상의 제작, 즉 조각의 부분이다. 주체 92 교과서의 조각에서는 환조, 부조와 함께 환경조각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에 비해, 주체 103 교과서는 여러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군상 제작에 조각 대부분의 장을 할애하고 있다. 주체 92 교과서의 “보람찬 학교생활을 내용으로 환각을 만들자”와 같이 내용상으로는 유사하나 군상을 통해 인물의 감정과 “운동감, 비례, 표정”을 잘 연구하도록 하여 인물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군상은 “단신상에 비해 생활을 폭넓게 반영”하며, “매 대상을 립체적으로 빚어나가면서 외적인 아름다움과 품고 있는 감정까지 나태내야”한다고 설명한다.

인형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주체 92 교과서의 공예 부분이 판금공예와 초물공예이었던 것에 비해 주체 103 교과서는 인형공예를 소개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제작에서 사람과 동물을 소재로 하는 인형으로의 변화이다. 또한, 순차적인 제작 기술 설명이 아니라 인형을 귀엽고 아름답게 정서적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놀이감으로서의 인형은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그들의 모습을 장식적으로 양식화”하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폭넓게 반영하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창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평가는 “인형공예에 대하여 이해를 정확히 하였는가?,” “인형공예의 특성을 살려 착상을 하였는가?,” “재료와 방법을 참신하게 적용하여 특색있게 만들었는가?,” “인형과 동물공예품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들었는가?”이다.

사상정서교양에 이바지하는 미술은

주체 92 교과서의 감상 부분이 4장에 조선화 명작의 4~5 작품만을 소개하고 설명은 거의 없는 도판 위주로 되어있었으나 주체 103 교과서는 이 부분을 학습자가 “관찰,” “분석,” “발표”의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주체 92 교과서가 한두 개의 작품, 즉 “강산의 저녁노을”같이 “김정일원수님께서……사회주의건설모습을 풍경화형식으로 그렸다”와 같이 작품에 대해 화가의 제작 의도와 몰골법 등 기법적 설명만을 4장 정도로 담고 있다. 이에 비해 주체 103 교과서는 10장을 통해 주제화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의 형식을 감상, 분석하는 방식을 구체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선택한 2-3점의 작품들에서 보여주자는 주제내용은 무엇인가?
2. 해당 작품의 창작가, 창작 년대, 시대적 배경, 창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3. 미술의 종류별특성에 맞게 구도구성과 선, 색채, 명암 등 조형적 요소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4. 작품을 감상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으며 다진 결의는 무엇인가?

5. 이 작품들이 당대시대에 어떤 역할과 감흥을 주었으며 후세에 주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6. 상징적수법과 사실주의적 수법을 어떻게 구현하였는가?(p. 98)

학습자가 스스로 감상할 작품을 2~3점 선정하고, 이에 관한 미술사적인 연구와 미술 비평적인 표현의 방식을 조사를 기반으로, 자신의 감정과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었는지를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 제작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영향력과 함께 사실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사하려 하였는지가 학습과제인 것이다. 같은 장에서 미술 작품이 가지는 미적 표현의 중요성 즉 작품에 대한 감흥을 “정서적 기억”이라 지칭하여 미술 작품의 특징이자 감상의 주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직접 체험한 감정정서에 대한 기억을 말한다. 정서적 기억은 그 재생에서 다른 기억 형태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다른 기억 형태들에서는 새겨 넣었던 내용 자체를 살려내는 것으로 재생이 진행된다면 정서적 기억에서는 그러한 정서적 체험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재생함으로써 그때의 정서적체험이 동시에 되살아나게 된다. 정서적 기억은 인간생활 특히 예술창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p. 98)

주체 92 교과서의 조선화 명작의 4~5 작품만을 소개하고 있으나, 주체 103 교과서는 출판미술, 서예, 영화 및 무대미술작품에 대해 각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출판미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정일이 “출판인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갈래의 미술은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주동하는 기동성 있는 형식이다”라고 하면서 “선전화, 판화, 삽화, 아동화”가 속한다고 하고 있다. 미술전람회를 “일정한 장소에 가치있는 미술작품을 전시해놓고 일정한 기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임 또한 그렇게 하는 행사”라고 정의하며, 작품의 전시와 전시 관람을 권장한다. 영화 및 무대미술이 “사회의 생활상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종합예술”이라 하며 이를 위한 분장, 의상, 소도구, 무대의 제작을 종합예술을 제작하는 요소로 소개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상정서교양에 이바지하는 미술”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출판미술, 영화, 및 무대미술, 서예작품이 사회생활에서 노는 역할을 이해하였는가?
- 출판미술, 영화, 및 무대미술, 서예작품의 내용표현의 특성을 이해하였는가?
- 미술의 종류에 따르는 형상적 특징과 미술가의 의도를 파악하였는가?

중학교 미술 교과서 주제 92(2010)에서 초급중학교 2학년 미술 주제 103(2014)의 변화 분석

본 연구는 목차를 중심으로 주제92 교과서와 주제 103 교과서의 내용을 교차하여 코딩하였다. 이 후 주제 103 교과서를 중심으로 각 장의 유사한 내용으로 코딩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두 교과서의 비교 코딩은 두 교과서의 유사성을 보여주게 되었고, 주제 103 교과서 자체의 분석은 변화를 나타낸다. 다음 표는 주제 92 교과서와 주제 103의 목차를 내용상으로 어떻게 대응하며, 변화는 어떠한지를 대략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중학교 2학년 미술 교과서 주제 92(2010)과 주제 103(2014)의 목차 대응

주제 92	주제 103	비교
정물화	우리 생활에서의 정돈 물건을 보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감정을 대입하여 표현
풍경화 (조선회)	창공을 나는 새를 찾아	주제화 중심 설명을 더 강하게
인물화	아름다운 생활은 우리 가까이에	주제화를 주변의 일상을 사상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으로.
주제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미학적 요소를 주제화에서 찾도록 유도. 북한의 자연환경, 도덕적 내용, 노동에 대한 찬양,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 명화 전사들과 노동자의 모습을 담을 작품의 내용적 요소에 집중.
조각	우리들의 모습을 립체물로 조화시켜보자	인물상 위주의 조각에서 주제를 담은 군상조각으로.
출판미술	런속 그림을 재미있게	관화의 내용이 줄고 스토리텔링을 설명 (그림 이야기형식)
도안: 평면 구성	간판을 멋있게 장식하려면	당을 칭송하는 건물과 간판제작.
도안: 안내도	지도 제작	지도 제작과 디자인 표현
공예	인형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공예의 장르적 표현에서 놀잇감, 장식용 등 인형제작으로. 생활의 반영과 어린이 미술을 높이 평가.
감상	사상정서교양에 이바지하는 미술은	몇 개의 주제화 중심에서 출판미술, 영화, 무대미술과 주제화를 함께 제시. 구체적 감상 질문. 정서적 기억.

주제화 중심의 주체사상 강조 구조

서술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 주체 92 교과서와 103 교과서의 변화가 심하게 보이나, 실제로 목차를 중심으로 주체 92 교과서와 주체 103 교과서의 구조적으로 대응해 보면 전체 구조의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물화”는 “우리 생활에서의 정든 물건을 보며”로 “풍경화(조선회)”는 “창공을 나는 새를 찾아”로, “공예”는 “인형을 귀엽고 사랑스럽게”로, 그리고 “감상”은 “사상정서교양에 이바지하는 미술은”등으로 대응해서 보면 목차를 서술하는 방식이 변하였을 뿐, “회화, 조각, 출판미술, 공예, 감상”이라는 전체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배에 가까운 쪽수의 증가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나 조선화의 근본적 사상, 즉 조형적 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생활 수단과 환경을 고상하게 꾸리는(통일외교원, 2018) 주제화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증가의 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전체의 내용이 유사하다. 즉, 북한의 자연환경과 주변 이웃과 친구들에게 봉사하는 도덕적 내용, 그리고 힘든 노동을 찬양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중심은 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에 걸치는 창작활동을 통하여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조선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그 빛나는 유산들 가운데서도 화조화는 그윽한 민족적 향취와 무르익은 예술적 기교로 하여”(p. 15)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의 사실주의적 미술”을 표현(북한 사회과학원, 1992)하는 전체 방향은 명확히 일치한다.

주체 92 교과서는 조선화를 중심으로 사상을 담고 있는 미술의 각 장르를 모방하여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북한 주민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감정과 정서에 맞는 인민적 감정을 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체 103 교과서는 모방을 지시하지는 않고 설명을 통해 주체사상을 담은 미술의 창조를 칭송한다. “명화 창작과정”은 “무력투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 혹은 당에 대한 로동 계급의 끝없는 성실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주의적 내용을 항일투쟁의 혁명투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 사회주의 제도에서 행복한 인민 생활 등으로 자세한 설명을 더하고 있다. 즉 전쟁과 혁명의 전사들을 찬사하는 것과 노동자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작품의 내용적 요소에 변화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다(북한 사회과학원, 1992). 최계근의 “강철의 전사들”(1966년)의 예시를 보면 “화가는 용해공들과 일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쇠물보다 뜨거운 당에 대한 충실성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pp. 38-39)고 하여 당에 대한 충성심을 화가의 삶의 경험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강철의 전사들>은 모두 두 작품이 있는데 “화가의 표현의도에서의 차이점”을 통해 노동을 당에 대한 충성으로 어떻게 느끼는 지 작가의 표현의도를 읽도록 격려하고 있다. 또한, 주체 92 교과서와 103 두 교과서 모두 어디에서도 북한 작가와 학생작품 외에 다른 나라의 작가나 학생의 작품은 등장하지 않는다.

기법 위주의 지도에서 학습자 중심의 개별 학습자 강조

전체의 구조와 궁극적 사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주체 103 교과서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내용과 학습 방식의 변화를 보인다. 위의 주체 103 교과서를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주체 92 교과서와 주체 103 교과서는 페이지의 양과 컬러 도판으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차이이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표현으로 학습자에게 “따라 그리기”(혹은 만들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고무하는 문제로 변화한 것이다. 주체 92 교과서가 “……잡는다,” “갈라준다,” “빚어 나간다”와 같이 모방을 지시하는 표현이었다며, 주체 103 교과서는 “그려보기,” “여러 물체를 가운데서 생활적으로 련관이 있고 조화가 되는 대상들을 찾아 정물구성을 해봅시다.” 혹은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생활장면을 찾아 주체화화쪽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펼쳐봅시다,” “작품은 화창한 봄날에 피어난 꽃송이처럼 환한 웃음을……량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와 같이 학습자를 주어로 하는 기술을 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목차 또한 주체 103 교과서(2014)의 목차는 주어가 학습자이다. “우리들의 모습을 립체물로 조화시켜보자,” “런속그림을 재미있게” 등이다. 다시 말해 주체 92 교과서가 장르별 기법을 설명하고 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재현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주체 103 교과서는 “누구나 노력하면 시도 쓰고 노래도 지을 수 있으며 그림도 잘 그릴 수 있습니다”라고 학습자 중심으로 설명한다.

주체 92 교과서의 머리말 페이지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들끓는 현실은 다 미술의 묘사대상이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화면에 옮겨 놓아서는 미술작품이 될수 없다. 묘사대상을 생동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꾸준한 노력과 정열적인 탐구 속에서만 이루어진다”(p. 1)라고 하며, 학생들은 “미술학습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미술에 대한 넓은 지식과 표현능력, 감상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주체 103 교과서(2014)는 “학생들은 미술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감상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미술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요구와 방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p. 1)라고 표현한다. 즉, 내용에서는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주체 92)” 혹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빛내어주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행복의 보금자리이며 삶의 터전”(주체 103)이라는 지도자와 정치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은 동일하나 그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학습자에게 지시하는 것에서 학습자에게 권유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주어가 된 주체 103 교과서(2014)는 모든 단원에서 “평가”를 기술하여, 평가의 기준을 학습자에게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주체 92 교과서를 비롯하여 이전의 교과서는 평가를 “미술교수참고서”로 교수자용 지침서에만 기술되어 있었으나, 주체 103 교과서는 표현의 적절성과 구성력, “리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단위

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적 이해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표현의 적절성의 경우 “우리 생활에서의 정든 물건을 보며”에서는 “정물관찬과 구도원리를 체득”하였는지 “련속그림의 글과 그림이 있게 표현되었는지” “조선화의 기법적 특성을 활용,” 혹은 “주제내용을 화면에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학습자 스스로에게 묻는 방식으로 평가를 제시한다. “리해” 또한 “출판미술, 영화, 및 무대미술, 서예작품이 사회 생활에서 노는 역할을 리해하였는가?” “출판미술, 영화, 및 무대미술, 서예작품의 내용표현의 특성을 리해하였는가?”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생활내용들을 리해하였는가?”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표현만을 강조하던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학습자가 그 단원의 주제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적절성을 학습자 스스로가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표현의 사실성만을 기준으로 하던 주체 92 교과서와 달리 평가의 기준에 학습자의 의도를 얼마나 반영하였는지가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자기가 구상한 주제내용을 화면에 명백하게 표현하였는가?” “자기가 말하려는 주제내용을 련속그림으로 표현하였는가?” “자기가 말하려는 한 내용을 군상조각으로 표현하였는가?” 등과 같이 학습자의 표현 의도가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다.

스토리텔링으로 개인의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 중시

이러한 학생들의 예술적 표현 의도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 주체 103 교과서는 학습자의 일상생활 모습을 반영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주체 92 교과서의 “조각”에서는 “환조,” “부조”와 함께 “환경조각”의 내용과 특징만을 담고 있었던 것에 비해, 주체 103 교과서는 여러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군상제작”에 조각의 대부분의 장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군상 조각은 “단신상에 비해 생활을 폭넓게 반영”(p. 66)한다고 하며, “우리들이 학습하는 모습을 2인 이상의 군상으로 빚어”보는 기준으로 “군상조각에서 행동묘사는 인물의 감정표현과 밀접히 련관되어 있다”(p. 73)한다. 공예 부분도 주체 92 교과서가 초물공예와 판금공예를 기술적으로 설명 따라서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주체 103 교과서의 공예는 “인형공예”만을 2배정도의 페이지를 할애해 다양한 재료로 제작이 가능한 인형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등장인물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인형공예는 “극예술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제작수법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하고 있다”(p. 86)라고 한다. 즉, 공연예술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교양과 인민들의 문화정성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p. 86)는 스토리텔링이 갖는 인격 형성에 중요한 교육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은 “판화”에서 “련속그림”으로 출판미술을 전면 개정한 것에서 확연히 들어난다. “련속그림책” 부분은 주체 92 교과서의 판화와 대응되는 장으로 판화를 기법적으로 설명하고 제작에만 몰두했던 92 교과서에 반해 “련속그림

은 일정한 주제의 내용을 여러 장면의 그림으로 펼쳐 보이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림형식”(p. 57)이라고 설명하고, “직관성과 설득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설득력을 구성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이를 시각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런속그림책 제작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 1) 주제를 정하기: 우리들이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았거나 선생님과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들은 인상깊고 감동적이었던 이야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이야기서술하기: 선택한 주제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4-5단계로 나누어 이야기를 만듭니다.
- 3) 런속그림 장면 구성형식을 구상하기: 이야기내용에 맞는 런속그림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인공과 주위인물, 환경을 구상해봅시다. 런속그림책을 병풍식 또는 묶은 형식, 족자형식 등으로 선택한 주제에 어울리게 구상해봅시다.
- 4) 초안 및 초본그리기: 선택한 이야기내용에 맞게 초안을 구성해봅시다.……
- 5) 채색 및 완성하기: 채색에서는 선과 색을 결합하여 대상을 단순화하면서도 직관성이 있게 묘사합니다. 중심대상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내용이 살아나도록 합니다.
- 6) 런속그림 제작완성하고 감상하기.(p. 59)

“런속그림”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이 통일”되어야하고 “인물의 감정이 생동하게 전달”됨을 중시한다.

사회적 맥락화를 통한 미적 행동 유발

주체 103 교과서는 주체 92 교과서와 달리 지식의 습득이 학습의 도구나 내용을 제공하면 학습자는 그대로 습득할 수만은 없음, 즉 배움의 전달/흡수는 통용되지 않음을 그 기반으로 한다. 비고츠키는(Vygotsky, 1978) 인간의 사고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서 인지적 구성은 항상 사회적으로 매개되며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된다고 하였다. 주체 92 교과서이 모든 장르를 다루는 장에서 1-4 단계로 따라그리기, 혹은 만들기를 통해 지시내용을 숙지, 외우고, 미감을 인지에 대해 이러한 가치관과 미감의 공유가 더 이상 “따라 하기,” “따라 만들기”를 통해 학습자에게 저절로 각인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주체 103 교과서는 설명이 아닌 학습자의 중심으로 사회적 구조가 학습자의 미적 사고를 지배하여 정신의 도구로 자리 잡아 사회 공동의 미감이 각인된다고 여겨진 것이다. 즉 북한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미감에 지속해서 노출하여 학습자의 미적 행동을 지배하도록 유도하여, 지식이 내면화되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의 사회적 맥락인 교사, 부모, 양육자, 또래

집단, 사회적 구조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구조를 구성하게 장치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과 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형성된 사고가 학습자의 인지가 구성되고 마치 도구와 같은 개인이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지로 형성된 도구는 외부적 도구가 아닌 정신의 도구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한다. 이 정신의 도구는 물리적 도구와 다르게 한 사람의 외부에 대한 대응을 지배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한다. 이 정신의 도구는 인간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동할 수 있게 만든다. 미술에서는 창작과 관련한 사고력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고력은 “사물현상의 본질을 인식하고 리론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한다. 주제 103 교과서에는 작품 제작의 순서를 설명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주제화 그리기 순차와 방법”으로 한 페이지를 할애하여, 1)구상 초안, 2)밑그림 그리기, 3)본 화면 그리기, 4)세부 묘사 및 완성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평가는 “아름다운 생활내용을 리해”하였는지, “주제가 명백하게” 드러나는지와 “조선화의 기법적” 이해가 충분한지이다. 다시 말해 주제화의 내용적 특징을 표현으로 잘 이루어 냈는지 그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의도를 읽어 보도록 하는 연습이 주를 이루어 생활의 모습 안에 담긴 “성실한,” “영웅적인,” “훌륭한” 일상생활의 모습을 표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사회 조직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학습자에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협동을 통해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개인은 그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정신의 도구로 활용, 문제를 만나거나 목표가 되는 일은 만나면 그 도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감상할 작품을 2~3점 선정하고, 이에 관한 미술사적인 연구와 미술 비평적인 표현의 방식을 조사를 기반으로, 자신의 감정과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었는지를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 제작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영향력과 함께 사실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사하려 하였는지가 학습과제인 것이다. 같은 장에서 미술 작품이 가지는 미적 표현의 중요성 즉 작품에 대한 감흥을 “정서적 기억”이라 하여 의사결정권이 학습자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북한의 미술 교과서는 2014년 개정하여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적 증가와 화상도가 떨어지는 흑백에서 컬러로 시각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학습자의 입장으로 명확한 변화는 보이는데, 특히 목차가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감상이라는 장르적 구분에서 “아름다운 생활은 우리 가까이에” 등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고 친근

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그 이전 미술 교과서가 미술 교과서를 표현방식을 기준으로 구조화했다면, 학습의 내용을 중심으로 목표를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단원마다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성취기준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코딩하여 비교 대조하여 보면, 주체사상을 예술적으로 이해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북한의 정치 세력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정치 지도자와 연결하고, 육체적 고된 노동이 아름다운 일이며, 주변 이웃과 친구들에게 봉사하는 도덕적 태도의 중요성을 고무시키려는 목적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동양화의 맥을 두고 채색과 서양화의 기법을 혼합하는 조선화라는 북한 미술의 표현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과 조선화 작품의 도판은 더욱 증가하였다.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제작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도 몹시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정치 세력이 강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구상적 표현이라는 것이라는 조선화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며, 시각 예술이 추상적인 형태로 인간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음은 여전히 부정하며, 다른 나라의 시각 예술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또한, 사회나 환경, 혹은 불평등의 문제를 들어내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음도 제시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 협동 농민, 근로 지식인이 단결과 협조를 추구하는 것이 미술 교과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의 교과서처럼 주입식 강요가 아니라 학습자의 “생활적 연관성”을 근거로 성취기준이 제시되고, 장르 위주의 표현력 습득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는 “따라 하기,” “따라 만들기,” “외우기”가 통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사상에 대해 전달하고 씨앗을 뿌리면 나무처럼 뿌리는 내리는 것이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이다. 미술이 개인과의 연관성을 찾아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예술품이 감정이 없이는 그저 이해되고 주입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북한의 미술교육의 이러한 학습 방식의 변화는 다른 모든 나라의 미술교육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회 전체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를 뿌리에서 줄기의 연결처럼 사회의 미학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예술은 개인에게 횡적으로 작용하여 리즘적인 이해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에 감정적 이해와 생성으로의 얇은 과정은 개인의 감정적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박정애, 2015)는 의미일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미술이나 문화예술교육의 실태가 어떠한가에 관한 자료도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교과서 본판을 연구한 문헌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실질적인지 논의하기 위한 후속연구는 북한의 미술교육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미술과 문화,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의 미술 교과서로 한정되어 있기에 다른 학년의 미술 교과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미술교육을 한층 더 이해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우리 사회에 소외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탈북 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존을 위한 민주적 시민성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남 (2012). 아동미술발달 이해를 위한 사회문화적 관점의 학문적 접근들.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3(1), 103-123.
- 김수진 (2019). 구성주의적 감상 교육에서 “주제”의 생성 과정에 관한 연구.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20(2), 109-135.
- 김일성 (2012). *김일성전집*목록. 북한: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재인 (2013). 들뢰즈 미학에서 “감각들의 블록(un bloc de sensations)”으로서의 예술 작품. *미학*, 76, 39-72.
- 김진아 (2012). 통일대비 남북한 미술교육 통합 방안 연구-남북한 미술의 특징과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진태 (2017). 통일대비 남북한 미술교육 방안 연구 : 초·중학교 대상의 미술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맹혜영 (2020). 추상 기계와 미술교육.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21(1), 1-22.
- 박정애 (2015). 문화의 세계화와 관계적 다문화주의.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6(4), 1-16.
- 북한 사회과학원 (1992). *조선연감 9*,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북한정보포털 (2019). *미술*. 북한정보원.
- 쉽쇄·안티구라다 (2019). *북한사회-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서울: 경진출판.
- 윤여진 (2018). 남북한의 중학교 미술 교과서 용어 조어 분석 비교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윤혜준 (2017).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미술과 수업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이은하 (2012). 중학교 미술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유나 (2012). 남·북한 초등 미술교육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통일교육원 (2018). *북한 이해*. 통일 교육원.
- 통일교육원 (2011). *북한 이해*. 통일 교육원.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London, UK: Sage.
- Portal, J. (2005). *Art under control in North Korea*. (권오열 역). *통제하의 북한예술*. 경기: 길산. (원저출판, 2005)
- Vygotsky, L. S. (1978). Cole, M., John-Steiner, V., Scribner, S., & Souberman, E. (Eds.),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Understanding North Korean Art Education through Art Textbooks

Hye-Youn Chung

Hongik University

North Korea's art education aims to understand Juche art and Joseon painting based on the socialist character of the Dangseong, the people, and the class(North Korea Understanding Report, 2018). Therefor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North Korea's art education compared to that of South Korea, preceding studies on North Korean art education try to compare North Korean art textbooks to South Korean textbooks, which are limited in cases. This study focuses on North Korean middle school(or elementary junior high school) 2nd grade textbooks, focusing on the overall structure of art textbooks, middle school 2nd year(the 8th grade) art (Juche 92) published in 2010 and 2nd year art textbook(Juche 103) newly produced in 2014.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North Korean art education were examined. This study used content analysis method(Krippendorff, 2004) to analyze how the Juche 103 art textbook(2014) improved from older textbooks. The Juche 103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2nd grade art textbooks changed from black and white textbooks to color and increased resolution, so the visual perception was remarkably better, and the number of pages doubled from 60 pages to 113 pages. The basic method of narrative and the method of using sentences have been revised centered on the learner, and the criteria for evaluation at the end of each section are specifically presented. The standard of expression of the learner's personal experiences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based on "life relevance" and storytelling is possible. Nevertheless, if the contents are naturalized around the table of contents, in reality,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overall structure. The content still focuses on how important moral attitude and hard manual labor are, and how great traditional North Korean beauty is, which emphasizes on the justification that North Korea is the best(Unification Diplomatic Institute, 2018). It was confirmed that the focus of the content emphasizing loyalty to the party did not change at all. Although the contents remain the same, the major change in North Korean art textbooks seen

in the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learners is that art education is no longer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expression and the ideology of a society is not connected like a branch from the root, but the individual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the learner is essential.